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7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3월 2일 (제731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 네 안경을 닦아라

어느 날 부부가 자동차를 몰고 주유소에 갔다. 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서비스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줬다. 그런데 남편이 유리창을 열고는 “아빠, 짬은이. 이왕 닦아주는 거 좀 닦아 줘. 유리가 여전히 지저분하잖아.” 라고 했다. 짬은이는 유리창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손님, 깨끗하게 닦았는데요.” 했다. “어허, 짬은이,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봐.” 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여보, 유리는 깨끗하게 잘 닦였어요. 당신 안경 좀 짚 봐요.” 하고는 남편의 안경을 받아 닦아줬다. 아내가 내민 안경을 받아 쓴 남편은 겸연쩍은 듯 말했다. “짬은이, 미안하네. 유리는 깨끗하구먼. 내 안경이 더러웠어.”

내 안경의 티, 그건 선입견(先入見)이다. 선입견이란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한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제대로 볼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 자고로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빨갱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법, 내 마음의 안경이 더러우면 맑게 보일 수 없다. 그러므로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을 벗어던져야 한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고 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막6:3)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아무런 권능도 행치 않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였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7:4-5).

## 살기 원하면 자존심을 버려라

지난 2월 23일, 인천교회는 2014년 첫 총동원전도주일을 선포하고, 이를 실행했다. 교역자와 장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여 이날 인천교회는 대성전은 물론 소성전까지 웅성할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간 총회장 목사님은 ‘인천교회를 크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나 이번 총동원전도주일을 통해 목사님은 ‘입당예배 후 가장 많은 성도가 참석했다. 하연 된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치료해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망측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병원 문을 나왔고, 종기가 악성으로 발전해서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주인공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야만 장군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감옥과 투구만 벗으면 진물이 줄 줄 흐르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문둥병을 치료하러 왔을 때,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야만 장군이 자존심이 무척 상해 자국으로 돌아가려하자 동행한 종들이 ‘장군님,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야 그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먹을 게 없으면 없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아버지에게 무슨 자존심입니까? 내가 오늘의 성공을 이룬 것은 성도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 꿇어 용서를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자존심을 못 버려서 핑계만 댔지만, 다윗은 문부백관들이 있던 없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상사에 자존심 부리면 승진만 어려워지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존심 부리면 갈라



인천예수중심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에배(2014.2.23)

서 총회장 목사님은 ‘살기 원하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자존심이란, 스스로 자(自), 높을 존(尊), 마음 심(心)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며,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자존심을 다 갖추면서 목적인 바를 이루기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썩지 않는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란 것을 땅에 묻어 썩혀야 목적인 열매, 성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명이에 종기가 난 여자 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고 했으나 남자의사인 터라 두 여자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살고보자 싶어 부끄러움과 자존심

깎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왕하 5:13) 라고 간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야만 장군이 마음을 풀이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걸했을 때 주님이 그녀에게 ‘개 같은 여자’ 라며 자존심을 구겼지만(막7:27), 그 여인은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 주십시오.”(막7:28) 라며 계속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극찬하시고, 소원을 이뤄주셨습니다(마15:28).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가 탕자가 된 둘째아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려야 나만 손해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설 수 있습니다. 한(漢)나라의 개국공신인 한신 장군이 자존심을 버렸기에 초왕(楚王)에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싱가포르도 리완유가 자존심을 버리고 열강국가에 원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며, 지금의 대한민국도 선진국은 물론 잠재했던 일본에게까지 가서 배우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히12:2). 자존심을 버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자존심은 절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 어찌 목사님만 기쁘실까?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잔치를 베푸신다는 예수님은 오죽하실까? 하연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

**2014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시간: 매주 수요일 밤 7:3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16:1~19)



#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큰 술에다 찬물을 담고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그 술에 불을 때기 시작하여 물이 따뜻해지면 개구리는 배를 위로 뒤집고는 유 유자적하며 뜹니다. 그러다 물이 점차 뜨거워져서 살아져 죽고 말지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일이 잘 안 됩니까?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시들합니까? 망했습니까? 되는 꼴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유혹에 흔들립니까? 원인은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은 기도

에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제가 알던 유명한 목사가님이 계십니다. 한 때 대한민국을 떠돌며책하게 할 정도로 능력이 있던 분입니다. 그 분이 잘 나가던 때에 보았는데, 그 분 하는 말이 "이 목사,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몇 년이 못가서 그 분의 목회는 곧두박질쳤고, 지금은 비참하게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의 종은 하루 종일 심방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운종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설교를 하셨으니 밤에는 쉼 쉬셨어야 합니다. 그 분도 육체를 갖고 계셨는데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막 1:35),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어김없이 기도하셨습니다(막6:46). 기도로 공

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욥을 공격하고 넘어트리려는 마귀의 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뽕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미 같은 것이 마귀입니다. 그것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고(엡6:12),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21일 동안 바사국인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단10:13),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은 오직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을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출14:15),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도(출15:25),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모세는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한나도 평생의 소원인 자식을 기도로 얻었고(삼상 1:27), 히스기야가 앓수르 침공과 산해립의 농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왕하19:19), 그가 죽을병에서 고침을 받고 더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왕하20:2).

또한 에스더가 풍전 등화



총회장 이초석 목사

안에 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막 9:28-29).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욥5:8). 그 이유인즉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욥5:9).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래야 합니다. "우리가 공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6).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방법

는 서리라도 내리면 얼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막14:38)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유혹이 참 많이 옵니다. 가끔

##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곧 죽은 영혼이다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 기도하기 때문에 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의 거목들이 흔들흔들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단적으로 기도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목도 태풍에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 마음을 지켜 천국이 이르도록 넘어지지 않는 법, 기도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21:36).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삼상12:23). 역대상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대상10:13-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마 16:19). 그 열쇠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할렐루야!

##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눅3:21),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눅23:46).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엡6:12)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것들의 체계는 참으로 엄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떨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정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이 말씀은 제가 필복 속에 괴로워할 때 받은 말씀으로, 악한 것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니 정신 차려 기

어 허기진 사자의 굴속에서 털 끝 하나 상처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하루 세 번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니다(시121:1-2).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셋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40일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눅4:1-13).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잔바람에도 흔들리고, 하룻밤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자신을 놓아주는 법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땔 때, 1,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한다. 1,000번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 '걸기'라는 하나의 성공을 맛보게 되는데, 그 성공이라는 것도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기는 죽어라 엎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해서 이제 막 걷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걸기'라는 대단한 능력은 곧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능력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고 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를 쓰고 올라가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면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무수한 동료, 혹은 경쟁자들을 보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순리다. 그럴 때면 누구나 좌절하게 된다.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꼭 이렇게 되곤 한다. '안 되면 말고, 다른 길!', 이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요즈음 누구나 부러워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많다. 내가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이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한 정신과 의사가 매체에서 말하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매이게 되면 생각의 폭이 아주 좁아진다."고 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커다란 종이에 점 하나를 찍어놓고 그 점만 몇 시간씩 쳐다보면, 종이의 흰 여백은 사라지고 점만 거대하게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문제가 태산같이 느껴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자

신이 대단한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현실에는 까만 점보다 흰 여백이 훨씬 더 많다. 우리의 인생에는 무수한 선택지가 있다. 꿈을 시작할 때 꼭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과감히 놓아버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잘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다.

우리를 믿고 붙어있는 직원만 십 수 명이 남는다. 꽤 큰 인원이다. 이 인원 속에서도 힘든 일은 있다. 그럴때면 나는 "안되면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보자"라고 생각한다.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안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되면 다른 것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자는 것이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내가 세운 성공의 잣대, 실패가 가져올 끔찍한 절망감에서 자신을 놓아주자는 말이다.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신 것 또한 예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놓아버린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된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 호도

요즘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안준다고 부모를 원수 삼는 자들이 즐비합니다. 늙은 부모를 해외여행 가져고 해서 외국에 버리고 오는 놈들, 술 먹고 구타하는 놈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효자동' 이야기나 들려주십시오. 서울 경복궁 곁에 효자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효자동'이라 불리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는 들어와 잠이 들었는데, 이불 밑에서 자고 있는 손자가 베개인 줄 알고 아이를 배고 주무셨습니다. 몇 개월 되지 않은 손자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손자를 죽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속 코를 골며 잤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의 엄마는 시아버지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아이를 안고 나와 건넌방으로 가서 남편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죽어 슬픈 것보다 이

사실을 들으신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생각하여 죽은 아들의 뼈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이 자식아, 너는 왜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너 때문에 이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으니 이를 어떡하면 좋으냐?"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음음을 터뜨리며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동네에 퍼지고 임금님 귀에 까지 들어가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孝子洞)'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물과 명예는 잃었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절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효도하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창2:2-3).

예수중심편집실



::성경에세이::



### 귀를 기울이세요

소치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의 힘과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기도 했고,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국기를 가슴에 달고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여자 빙속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는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기 위해,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오는 것을 무릅쓰고 남자들도 듣기 힘든 역기를 셀 수 없을 만큼 들었다 놔다 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는 세계 최고의 7분을 위해 17년간 척추가 휘고 관절과 발목이 성할 날이 없었음에도 매일같이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 섰다고 합니다.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 선수들은 혹독한 훈련과 경쟁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올림픽에서의 시험은 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위해 선수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오랜 시간 힘든 과정을 참아내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찾아올 영광의 순간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언8:17).

신재식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일기를 써라

아들아!

새해부터는 일기를 써 보거라. 매일 일기 적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지. 그러나 간단히 하루를 메모한다고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없단다.

매일 일기를 쓰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보자. 오래전부터 매일 일기를 써온 내 경험에 비추어보자면, 일단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단다. 나는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이나 은혜를 준 사람, 또 내게 선물을 준 사람들 다 일기에 기재한다. 가끔 일기를 뒤적거리다보면, '아! 맞아, 이 사람이 그랬었지' 하고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기억하게 되지. 또 일기를 쓰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되새기게 되니 살다가 어려운 순간이 와도 불평하지 않게 된단다. 또 그동안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알게 되니 혹여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낙담하지 않지. 그래서 일기는 값진 자산이 되는 거야.

일생을 한 권의 자서전을 쓰는 것이라고 본다면, 일기는 우리의 자서전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자습서가 되고, 나를 비취주는 마법의 거울이 되지. 나를 뒤돌아보므로 반성하고, 다듬고, 절

제하고, 추스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꼭 일기를 쓰라고 몇 번이고 말한단다. 몇 명이나 듣고 실천하고 있는지...

아들아!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세로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워서 일기를 들다보면 잠이 들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런데 신하가 좀 오래 전의 일기를 들춰 읽는데, 아하수세로 왕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단다. 과거의 끔찍한 사건이 기억났기 때문이지. 5년 전 죽음에 왕의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던 일이지. 다행히 모르드게가 이를 먼저 알고 왕에게 밀고하여 이목을 차단한 사건이었지. 모르드게가 아하수세로의 목숨을 건진 거야.

아하수세로 왕은 그동안 그 사건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일기를 들고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다. "여봐라.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상이 내려졌느냐?"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단다. 거야. 아하수세로 왕은 참으로 황당했지.

자기 목숨을 건진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단다... 그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하만에게 공로자를 위한 보상계획을 세우라고 했고, 원수인 하만을 통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역전의 드라마가 써진 거란다. 더 나아가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연출이 이루어진 거지. 이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지만, 일기라는 매체를 통해 발단된 거 아니겠니? 너의 때도 그랬지만, 아버의 국민학교 시절에도 방학이면 선생님은 그림일기를 쓰라고 숙제를 내주셨지. 정말 그게 제일 힘든 숙제였던 걸로 기억되는구나. 방학 내내 일기를 안 쓰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거짓 일기 쓰느라 고생 많이 했지. 날씨가 작아지거나 하얀 눈이 내리면 그날부터 내내 일기를 안 쓰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거짓 일기 쓰느라 고생 많이 했지. 날씨가 작아지거나 하얀 눈이 내리면 그날부터 내내 일기를 안 쓰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거짓 일기 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이제라도 일기를 써봐라. 너무 버겁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중요한 일만 적으면 된다. 분명히 그게 나중에 너의 큰 재산이 될 것이고, 너의 발자취가 될 거야.

朋友

::성경에서 배운다::

# 1°C만 더!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김연아 선수는 그녀의 아름다운 연기만큼 격조 있는 성품과 말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그녀가 자서전에서 남긴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만하고 포기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정도면 됐다. 충분해.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물은 99도에서는 영원히 끓지 못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그 마지막 1도를 위해 모든 걸 참아내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 문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마지막 1분, 그 한계의 순간이 아닐까?’

다리굴절과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이번 올림픽에도 진통제를 먹으며 참았다는 그녀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1도의 숙제를 마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

성경에도 김연아의 어록처럼 마지막 1도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며 무리 사이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100도로 끌어 넘칠 믿음이 충분함을 아시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로 그녀에게 마지막 1도를 요구하신다. 그녀는 무너져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여 웅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큰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인정과 함께 딸의 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마15:21~28).

다베라 바닷가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낙향하여 다시 어부로 돌아온 그들은, 생계를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수확

이 없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요21). 그런 그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셨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결국 가장 힘들고 낙심한 그 순간에 한 번 더 힘을 짜내어 그물을 던지라는 ‘1도의 메시지’에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다시 그분의 음성을 향해 달려갈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었다.

지쳤는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100도로 끌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격려하시는 1도의 메시지에 주저 없이 순종해보라. 한번만 더, 조금만 더 참고 일어서라는 그분의 격려에 순종하는 순간, 생각지도 않은 영·혼·육의 축복이 쏟아 넘칠 것이요, 우리의 신앙도 더 큰 은혜의 강가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하인영

renming@daum.net

## Good News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사제로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필수적으로 들려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로마의 ‘성 계단 성당’ 안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은 모두 28계단인데 순례자들은 계단에 끼여진 우리 조각을 뿌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기에 루터도 그 곳에 이르러 어느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구

원의 확신이나 평강은 찾아오지 않았습니 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다가오자 루터의 가슴은 건널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발뻠 일어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계단을 걸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 때 루터가 깨달았던 것은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가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붙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닌

니다. 너무나도 쉽고 단순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에 구원의 문제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 무한 긍정 에너지의 자가발전

한 백혈병 환자가 있었다. 항암치료 후,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세 올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는 웃으며 ‘아! 세 올의 머리카락이 남았으니 오늘은 머리를 깎아야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두 올이 남아있었다. 그는 ‘음, 오늘은 두 갈래로 가르마를 타야겠다’ 하며 빗질을 했다. 또 하루가 지난 날, 그는 거울로 한 올 남은 머리카락을 보면서 ‘오늘은 포니테일 머리(하나라도 묶는 머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소유한 이 환자는 분명히 병을 이겨내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사물을 무한 긍정의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인지 찾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단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많은 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고 있다.

얼마 전, 광막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실명 직전의 위기에 처한 최절하지 않고 거뜨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여 년 간 들어온 목사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무한 긍정의 에너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동안 들려주셨던 목사님의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좌절의 순간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불안의 늪 속에서 그들

의 혼들리는 무릎을 지탱하고 올곧게 세워 줄 긍정의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 끼니처럼 시시때때로 자녀와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세상과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두어야 한다. 그러면 축적된 긍정의 에너지로 자가 발전소를 돌리며 갑작스레 닥치는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긍정의 자가 발전소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도 거뜨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결과를 만들고 생각의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

오자유

oh free@hanmail.net

##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비행기에 오른 한 백인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찾다가 화난 목소리로 급히 스투어디스를 불렀다. 스투어디스가 그 백인 여성에게 다가가 “손님, 무슨 일이지요?” 하고 묻자, 이 백인 여성은 “보면 몰라요? 내 자리가 저 흑인 여자 리잡아요. 난 저 흑인 옆에는 못 앉아요. 다른 자리 주세요.” 하며 노골적으로 흑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스튜어디스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손님, 진정하세요. 지금 좌석이 만원이라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후에 돌아온 스투어디스는 백인 여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손님, 사무장과도 확인해 보았지만, 이코노미석에는 빈자리가 없고, 지금은 일등석에만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항공사는 이코노미석에는 일등석으로 자리를 옮겨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불편한 자리에 손님이 앉도록 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백인 여자의 얼굴이 화해했습니다.

바로 그 때 스투어디스는 흑인남자를 바라보며, “손님, 짐 챙기셔서 일등석으로 이동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들은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 각지에서 이민족과 이주시킨 잔존 이스라엘과 혼혈로 생겨난 사람들이다. 유대인은 이런 사마리아인을 멸시했고,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유하기를 청했을 때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고(요4:40),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요4:9). 사람은 어떤 이유론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2:9, 개정개역).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